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제목 : 부활을 증거하신 예수님

성경: 누가복음 24장 36-49절

Tag:

36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37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38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39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 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40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41 그들이 너무 기쁘므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42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43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44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45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46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삼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47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48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49 불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눅24:36-49)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이다.

사망권세 이기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마귀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이 세상을 향한 자신의 지분이 어느 정도 확보될 줄 착각하였을 것이다. 그는 갖은 악독한 방법으로 자신의 사악한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어 한다. 마귀는 본성상 거짓말은 기본이고 천사처럼 위장하기 일수고, 이도 저도 아니다 싶으면 같이 망하는 진흙탕싸움으로 휘방하는 자이다. 마귀는 저 무저갱 지옥에 쳐 박히는 날까지 여전히 악한 방법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마귀는 신사인 척은 하지만, 결코 신사인 적은 없는 존재이다. 마귀는 정의로운 척은 하지만, 결코 정의로운 적은 없다. 마귀는 뭔가 많이 알고 있는 듯이 잘난척은 하지만, 결코 진리를 실천한 적은 없다.

항상 이런 양아치스러운 방식으로 세상을 농락해 왔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계략에 넘어갔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런 방식으로 마귀는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위로부터 능력을 힘입어 죄악세상을 이겨야 한다.

언제든지 마귀는 하나님의 정의를 이겨내지 못한다. 하나님의 세상을 향하신 사랑을 이겨내지 못한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마귀의 악을 제압 하신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바로 이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하심의 강함을 증거하신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사람들의 죄와 저주를 대신 감당하셨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진리를 믿는 것이다.

죄와 저주의 문제는 우리가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희생으로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죄를 짓는 순간 우리는 마귀의 그물에 걸리게 된다. 빠져 나올 수가 없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한다.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해야 예수님께 도움을 청할 수 있고, 회개

할 수 있고 뉘우칠 수 있고, 다시는 동일한 죄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 회생의 기회가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회생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마귀의 권세를 꺾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우리의 죄를 무산 시키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를 의롭다고 부르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은 기독교의 가장 큰 핵심 진리이다.

그러나 정작 사람들은 이 진리를 잘 깨우치지 못한다.

이 진리가 가져다 주는 효과를 믿지 못한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형편과 자신의 생각에 갇혀있기 때문에 자기가 무엇을 소망해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잘 모른다. 다만 각자에게 취향과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방향도 모르고 방법도 모른채 살아간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마찬가지다.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는데도, 아직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감을 잡지 못한다.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무런 생각이 없다.

갑작스럽게 등장한 예수님을 보면서 단순하게 유령이 나타난 것이라고 생각하고 무서워하기 바쁘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진정시키시느라 바쁘다. 평안하라고 하신다. 나는 유령이 아니라고 하셨다. 심지어 나를 만져보라고 하셨다. 보통 사람들은 유령은 헛것이라 생각하고, 환상이라고 생각한다. 홀로그램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안심하고 나를 만져보라고도 하시고 음식을 잡수기도 하셨다.

**39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 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부활은 교리가 아니다. 부활은 꾸며낸 이야기도 아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죄와 저주에 굴복하지 않고 모든 인류가 자신이 직면한 현실적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다.

우리의 믿음은 바로 그런 소망을 주실 수 있는 예수를 믿는 것이다.
믿음의 대상은 예수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을 돕기 위해서 성경공부를 사용하셨다. (물론 구약) 왜냐면 당시에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거기에 예언의 말씀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예언자마다 그 표현이 천차만별이다. 어떤 예언자는 완전히 깨닫고 기록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본 것을 자기 식대로 기록한 것도 있기 때문에 심지어 한조각 단어만 남아 있든지, 계시적 한 장면만 기록한 곳도 많다. 즉 구약의 예언서는 아직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처럼 손으로 만져보고 눈으로 보는 수준은 아니라는 뜻이다.

44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45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 몇가지

*원시복음

15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창3:15)

*요나의 기적

*아브라함의 이삭 번제 사건

13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창22:13)

*야곱의 예언

10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 요셉 이야기

* 욥기에 나타난 의인의 고난

* 출애굽기에 나타난 유월절 사건

* 다윗의 시

10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예수님)를 멸망시키지 않으실(씩지 않게 하실;개역판) 것임이니이다

11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시16:10-11)

1 [다윗의 시]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시110:1)

예수님은 직접 제자들에게 자신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구약의 말씀들을 해석해 주셨다.

우리는 이 말씀들을 보면서 무엇을 믿어야 할 것인가?

1. 예수님의 죽음은 역사적 사실이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은 것은 복음이다.
2. 부활은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심-하나님 자신이심을 증거하는 것이다. **부활은 예수님의 신성과 권위를 증거한다.**
3.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부활이 곧 예수님의 신성을 증명한다면, 그것은 곧 그의 죽으심이 단순한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죽으심이다.
4. 십자가와 부활이 예수님의 신성을 증거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오늘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는가? 예수님이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49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부활사건은 구원의 핵심. 구원이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가장 필

요한 사건. 깊고 세밀한 곳까지 구원받는 것이 진정한 부활. 다시금 생기를 되찾는 것이 곧 부활이다.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져야 죄를 이기고 세속을 이기고 나를 이긴다.

-지금 어디가 아픈가? 지금 무슨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가? 과거의 경험이 아직도 자신의 발목을 잡고 있는가? 내가 어디로 가야 좋을지 고민하고 있는가? 구원은 오늘 받는 것이다.

〈찬양예배〉

제목 : 창세기 원역사6 성경: 창세기 6장

Tag:

2.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셋의 후손과 가인의 후손이 섞임.

-저주가 쌓이게 됨. 경건의 영역이 축소됨.

3.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함.

-성령이 사람과 동행하지 아니함.

- 20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가르쳐 지킨 다음에 유심히 살펴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28:20)

-그들이 육신이 됨. 세속적 존재가 됨. 하나님의 관심 영역으로부터 멀어짐. 아버지로부터 멀리 떠남. 273장 (1).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후렴〉.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그렇게 살아도 120년 살 수 있게 하심. 그 날들을 제어하심. 야살의 책에는 120년의 기간동안 회개할 기회를 준 것으로 기록함. (홍수 이후로 정말 사람의 수명이 단축됨.) 수명의 단축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최소한 120년은 살아야 한 세상 사는 것이 됨. 그것도 힘들.

4. 당시에 땅에 네피림(하나님의 아들들의 후손들.)이 있었음. 영웅들.

5. 죄악이 가득하고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함. 악한 계획이 죄임.

6. 한탄하고 근심하심;세상을 만드신 것을 한탄하신 것 아님.

-자식들 때문에 근심하시는 부모님을 표현한 것.

-잘못된 창조는 아님.

-사람은 저주 가운데 태어날지라도, 탄생 자체가 저주를 끊는 사건임. 모든 탄생에는 저주를 끊어야 하는 사명이 담겨 있음.

한탄; 망쳐버림에 대한 노여움. 망가진 자동차. 창조목적과 의도에서 벗어난 상황을 지켜보시면서 실망하심. 인간이란 망치는 놈. 아버지는 더이상 망치는 것을 좌시하지 않으시는 분. 그저 바라만 보고 있지 않겠다. 속만 태우고 있지 않겠다. 창조주로서의 자율권을 행사하심. 7절.

-열매를 바랐더니 열매는 없고 잎만 무성.

-노아의 홍수.

(야살의 책. 노아의 아내는 나아마(498:580).-그는 자녀를 낳기를 꺼려했었다. 노아595년부터 5년동안 방주를 지음. 600세때 홍수가 일어남.